



전국 축산인 한마음 전진대회!

- 1만 5천 축산인의 목소리 일산에 울려 퍼져 -



전국 축산인들의 함성이 거셌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전국축협운영협의회(회장 서응원), 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회장 최윤재)가 공동으로 개최한 '전국 축산인 한마음 전진대회'가 지난해 12월 7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일산컨텍스에서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축산농가와 관련 단체, 학계 관계자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전국 축산인들은 대국민 실천약속을 선포했다.

〈축산업계의 대국민 약속〉

1.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축산으로 전진하겠습니다.
2. 안전한 축산물 생산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랑받겠습니다.
3.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는 친환경 축산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4. 나눔축산 실천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동행에 나서겠습니다.
5. 수입축산물에 맞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축산인들은 또한 축산업이 전체 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생산액의 상위 10대 품목 중 6개 품목이 축산물이 차지하고 있는 농업농촌경제에 중요한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에 없어서는 안될 단백질 공급원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대선 공약 요구안을 결의했다.

〈우리의 결의〉

- 국내 축산물 자급률 확대를 위한 특단대책 마련하라!
- 농림축산 식품부로 개칭하고 축산실을 설치하라!
- 경제 민주화를 위한 FTA 무역이득공유제를 실시하라!
- FTA 축산농가 피해보전대책을 현실화하라!
- 사료가격 안정기금을 설치하라!
- 무허가 축사 양성화 특별대책을 마련하라!
- SOC차원의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을 마련하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전체 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할 만큼 축산업은 농촌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자 국민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단백질 공급원임에도, 왜소한 축산행정 조직은 물론이고 정부시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전국 축산인 스스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행사가 기획된 만큼 대선후보들이 차기 정부 농정 정책방향에 축산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행사 당시 제18대 대통령 후보들도 함께 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축산은 쌀과 함께 우리나라 식량 산업의 핵심 축이자 농촌의 핵심 산업으로 발전했음에도 축산업계는 과거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현장스케치 3



문재인 전 민주당통합당 대통령 후보 부인 김정숙 여사가 문 전후보를 대신해 초청발언을 하였다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메운 축산인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원단체장 및 공동개최단체장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며 “유통단계 개선, 사료값 안정화, 친환경축산 육성, 첨단 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경쟁력 제고, FTA 등에 대한 축산인 권익 배려 등이 축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실현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잡한 유통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고, 사료가격 안정화를 위해 저리 사료를 지원하는 한편 사료 원료 무관세화와 조사료 단지 조성을 통한 가격 안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통해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 R&D(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규제를 줄이고 세제를 합리화해 개방화에 대비한 농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박 당선인은 “축산업의 현실을 감안해 농림축산식품부 개칭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축산업을 더욱 챙길 수 있도록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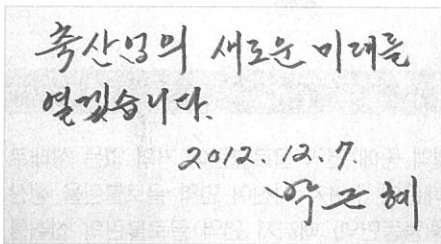
문재인 전 민주당통합당 대통령후보는 최규성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장이 대독한 소견발표를 통해 “축산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축산물 가격은 하락해 농



자신의 공약을 전하고 있는 박근혜 당선인



공식 행사에 축산인 대표들과 박근혜 당선인과의 만남자리에서 우유 건배를 하는 박 당선인과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박 당선인 방명



공약요구안 결의문을 전달받는 박 당선인과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원단체장 및 주요인사들

가의 어려움은 더해감에도 정부에서는 축산물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물가안정을 이유로 수입고기를 시장에 푸는 등 국민 건강과 축산인 소득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하고 "무역이득금을 통한 FTA 상생기금 마련, 사료가격 안정, 사료곡물비축제 강화, 송아지생산안전기금 개선·보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사료자급률을 높이는 한편 급식에 대한 공공조달을 확대하고, 경축순환시스템·친환경 축사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동조합 중심의 브랜드 마케팅 강화, 의무자조금 개선 등 현안에 대해 농가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자고 전했다. 이어 그는 "축산업이 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하는 등 중요함을 인식, 농림축산식품부로 부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범축산업계는 대선공약 요구안에 △식량 자주율 확대 지원 △농가 소득안전망 확충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 마련을 3대 축산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㉞